

공 화 국 의 전 승 력 사 는 영 원 할 것 이 다

나는 지난해 7월, 전승 60돐을 맞은 공화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지난 세기 50년대 조선전쟁의 진실에 대하여 많은것을 알고싶었던 나는 서방세계가 《전쟁방화국》으로 선전하고 있는 공화국에서의 전승행사에 참가하여 의문의 모든것을 내 눈으로 직접

누가 조선전쟁을 일으켰는가?

지난해 공화국방문시 취재의 첫 주제는 《지난 세기 50년대 조선전쟁을 누가 일으켰는가?》하는것이였다. 공화국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는 서방의 선전만에 익숙해있던 나의 물음은 처음부터 반격에 부딪쳤다. 만나는 주민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조선전쟁은 미국의 사족일에 리승만 《정부》가 일으켰다고 울분을 토했다. 공화국에는 그를 립증하는 사진과 역사기록자료들이 많았다. 그렇다면 공화국에 와서 지난 50년대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가 하는것을 묻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란 말인가. 그러던중海棠산호텔에서 만난 40대의 한 남성이 나의 생각에 제동을 걸 어왔다.

《선생은 지금 객관적판단을 한다 고 하지만 자신이 오래동안 살아온 미국이나 서방의 견해에 치우쳐있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왔으면 한번쯤만이라도 우리의 견해에 관심을 가지기를 권고합니다. 그래야 판단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보장할수 있을줄로 압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역사자료는 그만두고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전쟁이라는것은 이길수 있다고 생각될 때 먼저 일으키는것이 아닙니까, 핵무기와 항공모함을 비롯한 최신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던 미국을 상대로 그때 보통과 수류탄같은것밖에 가진것이 없던 차 창건된 우리 나라가 어떻게 먼저 전쟁을 일으킬수 있습니까?》 무력관계에서 너무나 하위에 있는 나라가 술한 파괴와 죽음을 불러오는 전쟁의 참화를 스스로 자초할수 없음을 그 어떤 역사자료고증보다 합리적인 사교를 해보면 알수 있다는 말이였다.

나는 생각해보았다. 프로이센장교이자 군사전문가였던 클라우제비츠가 내놓은 《전쟁론》은 현대군사학의 교본이다. 이 책은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라는 명제로 유명하다. 20세기 국제관계에서 그의 명제는 종종 전쟁의 합리성을 뜻하는것으로 리해되였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발발, 확대, 종결이 각국의 리해관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산된 결정이며 또 그럴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고대전쟁으로부터 현대전쟁에 이르기까지 무력관계가 서로 비교할수 없을 정도의 열세에 있는 나라나 무장집단이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자기의 정치리해관계에 따라 먼저 일으켰다는 사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공개적인 방법이든 음밀한 방법이든 력사는 전쟁을 원한쪽에서 언제나 먼저 행동을 개시하였음을 기록하고있다. 그럼 누가 전쟁을 원했고 왜 원했는가.

보고 확인하고싶었던것이다. 공화국방문과정에 보고 느낀것 일부는 이미 지난해 인터넷를 통해 발표했다. 다시 돌아온 7월을 맞으며 세기를 이어 진행되는 북미대결전의 의미를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실감하며 지난해의 취재자료를 다시 정리하여본다.

나는 당시의 미국의 대조선정책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남조선강점초기 신탁통치과정을 통하여 전조선을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체계에 편입시키려 하였으나 그것을 실현할수 없게 되자 남조선에 《단독정부》를 세우고 그것을 저들의 대조선정책실현의 도구로 써먹으려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쏌련과 중국, 북조선으로부터의 《공산권 확대》에 《방벽》을 쌓기로 작정했다. 나아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막대한 부를 획득하며 오만해진 미국으로서는 앞으로 공산세력과의 무력대결의 초점이 될수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위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조선반도를 반드시 타고았을 모략을 꾸밈음을 짐작할수 있다. 그 모략이란 리승만 《정부》를 앞에 내세워 전쟁을 유발시키게 한 후 《유엔》의 모자를 쓰고 《정당당하게》 조선전쟁을 수행하여 《합법》적으로 조선반도를 타고앉는것이였다. 결국 오래동안 내가 정설로 여겼던 조선전쟁도발주범에 대한 인식과 《북조선의 침공》이라는 미국과 남조선의 조선전쟁의 성격에 대한 견해가 재검토되기 시작하였다. 귀국후 나는 조선전쟁과 관련한 책들과 당시의 신문, 통신자료를 보며 조선전쟁도발의 주범이 누구인지 력사적 사실을 통해 다시 확인할수 있었다. 미국의 학자 부르스 커밍스가 쓴 《코레아전쟁의 기원》을 비롯하여 《코레아전쟁의 숨겨진 력사》,

7. 27은 어떤 날인가

공화국에서는 정전협정이 조인된 7월 27일을 전승절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방에서는 지금 조선반도에서 전쟁은 잠시 중단된 상태에 있기때문에 무승부라고 한다. 때문에 미국도 남조선도 이날을 《평화수호》,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의 날로 기념하고있다. 그러면 공화국이 말하는 전승이란 일방적인 자축이란 말인가. 나는 이러한 회의심으로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평양의 창건거리 김정숙평양방직공장으로동자의 집을 찾아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새 집에 입사했다는 행복에 넘친 그들부부의 이야기를 듣다가도 인사불성으로 불꽃 전승에 대해 물었고 평양 지하철도 개선역에서 아이의 손목을 잡고 지나가는 녀인을 따라가서도 이것을 꼬치꼬치 물었다. 그들은 칠순객의 해외동포를 의아하게 바라보면서도 거침없이 말했다. 그들의 말을 정리하면 대략 이렇다. 《왜 전승이 아닙니까. 100여년의 침략력사에서 단 한번도 저본적이 없다는

재미교포 차령목 《아메리카헌대사》, 《1950년대의 인식》, 《움직이는것은 무엇이든 썩라》 등에도 조선전쟁을 일으킨 미국에 대한 생생한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력사와 진실은 감추지 못하는 법이다. 조선반도에 분단선이 생기고 오늘까지 하나의 민족이 갈라져 비극을 겪는것도 미국때문이다. 나는 미국에서 근 50년을 살면서 비교적 미국을 잘 리해하고 잘 알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이 오랜 세월을 살면서도 미국사람들이 조선의 분렬과 조선전쟁에 그토록 커다란 영향을 미친 정치적 및 력사적사실들, 왜 공화국이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로부터 그토록 지속적으로 비속화되고있는지, 과연 《초대강국》 미국의 실체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살았다는것, 아니 너무나도 모르고있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게 되였다. 성격적기질로 보나 력사적과정을 살펴보니 조선사람들이 남의 나라를 침략한다거나 할수 있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으며 또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 미국은 그 무엇이 없고 가난해서가 아니고 남의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빼앗아 가지고싶어하는 나쁜 버릇을 태생적으로 가지고있다. 미국이 6.25전쟁때 저들이 일시적으로 점령한 지역의 이름을 《텍사스》, 《오콜라호마》, 《유타》 등으로 불려 나간것을 사람들은 다 모를것이다. 전쟁이 끝나면 조선반도를 미국의 령토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전쟁시기 실지 벌어졌던 사실들과 오만에 미국이 한 행동들이 중동과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반복되고있는 현실은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온 나를 몹시 괴롭게 하였다. 미국이 아니라면 조선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강대국인 미국이 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갖 해방된 신생독립국가인 우리에게 먼저 두손을 들고 정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 아침은 해주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어디에서 먹는다며 호언장담하였습니 다. 그들은 자기들이 꿈에도 질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하루면 승세가 갈린다고 했던 그 전쟁이 3년간 계속되면서 너무나 비참한 참패를 당하다나니 패전을 영예롭게 감싸기 위해 마침내 정전을 요구한것입니다. 《유엔》의 간판밑에 15개의 추종국가군대까지 끌어들이 미국이 어쩔수 없이 도장을 찍은 정전협정조인서는 조선에 바친 명백한 항복서입니다.》 해외동포사업국 안내원이 들려준 이야기도 흥미롭다. 《지금 미국이 조선전쟁을 두고 그 무슨 《잊혀진 승리》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패전의 수치감에 속앓이를 할것입니다. 《잊혀진 승리》가 아니라 죽어라고 잊고만있는 패전이기때문입니다. 조선전쟁이 끝나 후 미군은 《조선전

쟁은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안 적에 대한 잘못된 전쟁이였다.》고 자기들의 패배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조선 《정부》가 이날을 기념한다고 하는데 정전협정조인장에 마주앉은것은 우리와 미국입니다. 전쟁은 미국과 우리가 했기때문입니다. 오늘까지 군사주권도 못 가지고 사는 남조선 《정부》는 미국의 얼굴만 보며 사는 말그대로 괴뢰일뿐입니다.》 나는 공화국에 대한 리해와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선정적판단에서 벗어나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것이 중요하며 공화국만이 가진 고유한 특징을 파악하는 일이 선차적이라고 본다. 그러면 공화국이 말하는 전승은 얼마나 든지 납득할수 있다. 수백배의 수적, 군사기술적우세에 있던 《강대국》, 미국의 항복서를 받아낸 공화국의 결정적힘은 정신력이였다. 미국병사들은 남의 나라 땅에서 싸웠고 전쟁에서 저도 돌아갈 땅이 있었다. 그러나 공화국인중은 40여년간의 일제식민지생활에서 갓 벗어났고 전쟁에서지면 다시 그 생활을 강요당해야 하기에 목숨을 걸고 그 땅을 지켜야 한다는 필사의 각오와 맹약을 안고 싸웠다. 난생처음 제 이름으로 받은 분여지가 있고 돈 환관 안 내고 자식들이 공부하던 학교가 있으며 고향의 주인으로 마음껏 일하던 일터가 있었다. 8.15해방으로 얻은 기쁨과 자부가 너무나 컸다. 원주민을 학살하고 그 무덤우에 나라를 세운 미국병사들에겐 그것이 없었다. 그들에게 있었던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비대한진 미국이 비법적으로 쌓아놓은 엄청난 강재와 화약과 팔라와 인간중오뿐이였고 모든것을 버려도 건져야 하는 제 목숨 하나뿐이였다. 결국 조선전쟁은 약탈과 오만으로 함축된 미국의 물리적힘과 공화국인중의 자기것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초인간적인 정신력과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었다. 공화국인중의 운명적사고의 중심에는 언제나 김일성주석께서 서계셨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제기 항일전쟁에서 민중의 자주적힘을 발전시켰고 그 힘을 묶어세우시어 미국의 대독점군수재벌들이 쏟아내는 철갑병기들을 녹여내고 전쟁고용병들을 거꾸러뜨리신것이였다. 공화국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보면 철과 철이 부딪쳐 깨지고 부서지는 폭음소리보다 인민들 품어안으신 김일성주석의 그 위대한 심장의 박동소리를 먼저 들을수 있다. 그들은 생사를 판가름하는 전쟁의 나날에 전반적무상치료를 위한 내각결정을 선포하시고 적후에서 어느 녀인이 잃어버린 3살집아이를 위해 최고사령부 작전대에서 직접 구출작전을 조직하여 주시였다. 목격속에서도 안정된 인민들의 전시 생활을 위해 산들에 굴을 뚫고 지하시장을 꾸리도록 하여주시고 전쟁이 한창이던 때 전후복구건설을 위해 벌써 전선의

대학생들을 대학으로 불러주시였다. 이 모든것 하나하나는 인류전쟁사에 있어본적 없는 력사적사변이 아닐수 없다. 그분에게 있어서 조선전쟁은 더 강한 인민의 삶의 세계를 창조하는 전쟁이었고 이 나라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고 후방에서 보습을 익세게 끄는 녀인들의 바늘쌈지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전쟁이었으며 평화와 도덕과 물리를 지키고 그들의 승리를 인류에게 확신시키는 전쟁이였다. 빨치산투쟁을 통하여 세련시킨 특이한 전법들을 구사하시며 군과 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애정으로 현대전쟁의 새로운 힘의 료리를 증명하신 김일성주석은 세론이 지적하는것처럼 20대기를 격동시킨 명인, 명장이시였다. 공화국에서의 전승력사는 지난 세기 50년대에만 머물지 않는다. 미국을 축으로 하는 제국주의 《힘만능》집단이 김일성주석의 서거이후 공화국에 가한 특별하게 포악하고 비렬한 정치, 경제, 군사적제재와 포위압살책동은 가장 오랜 시간동안의 가장 야만적인 전쟁행위로 된다.

따라서 공화국은 생사존망이 판결되던 그 치열한 고난의 행군때를 《제2의 조선전쟁》이라고 부르며 그 싸움에서 공화국을 승리로 이끄신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선군혁명령도시기를 전승력사에 포함시킨다. 가장 가혹한 전쟁과 북 《붕괴》를 위해 필요했던 그 모든 특수한 수단과 방법들이 총동원되였던 지난 90년대의 북미대결전은 현시대가 제철한 또 다른 형태의 전쟁행위임을 우리는 부인할수 없다. 그 전쟁을 승리에로 이끈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전승철학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전승 60돐을 맞이하여 공화국에서 진행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았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처음 보는 순간 나는 한동안 말을 할수가 없었다. 언어를 잇는 순간이였고 정신이 공백속으로 빠져드는 순간이였다. 내용은 다 말할것도 없고 그 거대한 공연규모만으로도 나는 이제껏 나름대로 쌓아온 상식과 주견따위를 완전히 압도당하게 되였다. 인간의 재능과 지혜가 우주에 닿을수는 있어도 땅우에 그처럼 거대한 인간간상을 그처럼 황홀하게 펼칠수 있을까.

아마도 공화국이 말하는 일심단결이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은 퍼후에야 들었다. 공화국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뜻, 하나의 모습이지만 특히 어린 꼬마들까지 노래하고 불동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놓는 모습은 아직도 내 리해가 닿지 않는 아득히 먼곳에 놓여있다. 10만명이 거대한 공간에서 하나의 목적과 형상에 복종하며 만들어내는 초대세력들에 대한 저항력의 원천이 무엇이었을까.

늦은밤 나는 호텔에 돌아와 김일성주석께서 지난 조선전쟁시기 적전에 쏟아부었던 불소나기보다 더 위력한 그 불멸할 정신력의 힘이

김정일국방위원장님에 의하여 그대로 응집발휘되어 《제2의 조선전쟁》에서 또다시 미국을 라승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처럼 재능있고 정의롭고 굳센 사람들이 광활한 미국 땅에서도 산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가. 미국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나라를 지키고 가꾸는 북민중앞에 얼굴을 붉힐 때가 되였다. 나는 안내원에게 말했다. 북에는 힘이 있다. 대단한 힘이 있다. 당신들이 궁지높이 청송하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김정일장군님, 김정은원수님 그분들은 참으로 위대하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누구도 견딜수 없다고 생각할때 견디어냈고 현실인데도 현실처럼 믿을수 없는 신비의 화폭을 펼친 기적의 나라를 일구어내시고 태평양을 건너온 나에게는 그 비법을 선선히 가르쳐주셨기때문이다. 생각할수록 공화국에 대한 지난 시기의 나의 생각이 너무나 틀려있었음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속담에 우물이 깊어서가 아니라 드레박근이 짧아서 물을 못 쏜다는 말이 있다.

내 생각의 드레박근이 북이 지닌 정신적깊이에 닿을만큼 길지 못했고 길수도 없었음을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초대석에서 나는 다시한번 자인하게 됐다. 나는 서방탐방인의 눈으로 행사전반을 행정하게 살피였다. 초대석 맨 하단에 자리잡고있던 내 앞으로 북군민의 행렬이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 한사람, 한사람을 뵈ອງ질 않고 살폈다. 주석단을 향해 내뿜는 뜨거운 열정과 환호, 넘치는 기쁨과 환희, 그것은 나를 열광의 도가니속에 몰아넣었다. 많은 사람들을 울고있었다. 웃으면서 울고 울면서 환호를 하고있는것이였다. 그들은 왜 우는가, 왜 그토록 열광인가?

그들의 모습을 열심히 《눈취재》하는 사이에 행사는 벌써 끝났다. 그 벌써가 2시간이였다. 참으로 신기했다. 그들이 나에게서 고온속의 피로감을 모두 가져주고 잊게 해주었다. Mi급 메아리를 남겨주었다.

공화국주민 누구나 만나면 자기 령도자를 먼저 생각하고 령도자는 또 민중을 먼저 생각하는 어버이와 아들딸의 관계, 자기의 령도자를 만나뵈울 때를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그 인생관, 자기들의 삶의 가치를 모욕하고 짓물게려 할 때면 목숨을 내대고 지키는 결사항전의 자세, 여기에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내는 이루어낸 강력한 군사력이 함께 등장하여 지난해 행사장은 그대로 공화국의 힘의 진렬광장이 된셈이였다.

참으로 세계 《초강국》으로 자처하는 미국과의 싸움에서 이긴 공화국의 전승절행사는 200여개 나라가 존재하는 지구상에서 미국을 이길수 있는 유일무이한 공화국만의 힘과 오늘도 계속되는 적대세력들에 대한 저항력의 원천이 무엇이며 조선전쟁을 어떻게 평가할것인가, 7.27이 과연 전승인가라는 시대가 인류에게 준 물음에 명쾌한 해답을 준 21세기 최우수총화작이였다. (다음호에 계속)

